

『말에서 느껴지는 일본 문화』

연도 말이 가까워지면서 졸업이나 입학, 전근이나 이사 등 환경이 변화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. 이번 달의 리빙인 미야자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일본어 문구에 대해, 각각이 지닌 독특한 의미와 배경에 대해 소개하려합니다.



1. お疲れ様です(오쓰카레사마데스) : 노고를 위로하는 말/인사

본래는 일이나 활동을 끝낸 사람을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지만, 직장 등에서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시간에 관계없이 인사 대신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일본인이 인사 대신 이 말을 꺼내는 배경에는 ‘와(和)’의 정신과 ‘조화’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.

2. よろしくお願ひします(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) :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문구 기본적으로는 무언가를 부탁할 때 쓰는 말이지만, 그 외에도 대화나 활동, 혹은 관계를 시작할 때 등에도 쓰입니다.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뉘앙스를 지녀, 이야기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효과가 있어 매우 편리한 말입니다. 직장이나 이사하는 곳에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있다면 꼭 써 보세요.



3. お世話になります(오세와니나리마스) : 감사와 겸허함을 표하는 문구

앞으로 받을 지원이나 협력에 대해 미리 감사를 표하는 말입니다. 예를 들어, 이사하는 곳의 이웃이나 새로운 직장에서 인사할 때 등,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. 이 말에는 ‘당신에게 의지하게 됩니다만,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’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겸허함과 감사의 마음이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습니다.

말에 담긴 의미나 배경을 아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앞으로의 계절, 이러한 문구를 듣게 될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찰해보고 그 배경이 되는 일본 문화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떠신가요?

●미야자키현 내의 일본어 교육 정보 사이트 ‘하나타 일본어 나비’●

<https://hinatanihongo.mif.or.jp/korean/>

*일본어 번역은 후일,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.

이 코너로의 질문, 의견,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.

TEL : 0985-32-8457 FAX : 0985-32-8512 Email : miyainfo@mif.or.jp

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.

TEL : 0985-41-5901 FAX : 0985-41-5902 Email : support@mif.or.jp